

# 하나님의 기쁨, 나의 어머니

본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머니, 엄마, 올엄마」라는 주제로 제1회 백일장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여 간에 진행된 본 행사는 어린 주일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결 가족들이 참여하여 소중하고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특별히 수상한 4개의 작품을 이번 호에 게재하며 다스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 대상

## 어머니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는 4월이다. 오늘날과 웰지 어머니가 더 보고 싶다.

말이 없으신 어머니. 암전하고 인자하신 어머니. 버럭 화를 내셔야 할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참을 인’자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다.

‘어머니’라는 제목의 이 글은 토요일 아침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비롯되었다. 토요일이라 늦잠에서 깨어나, 건강을 위해 ‘아차산으로 신책이나 갈까.’하는 마음을 먹었다. 느긋한 마음으로 잠간신문의 ‘제목만이라도 읽고 가자.’는 생각으로신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어머니’란 제목의 기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김영식 천호식품 대표의 글이었다. 그의 글을 읽고 나니 감동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누군가와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펜을 들게 됐다.

김영식 대표는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광고로 대한민국에서 산소유의 효능을 널리 알린 중소기업의 회장이다. 갖가지 역경을 헤쳐 나온 그의 인생 이야기도 유명하다. 중소기업의 대표이기에 경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물론 누구라도 충분히 효도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분 역시 효도를 이야기할 땐 부족했다는 아쉬운 고백을 했다.



여혜구 장로  
명일교회

나 역시도 지금 그러한 생각을 자주 한다. 흔히 하는 말로 ‘나를 대로 열심히 효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비교할 만한 그 사랑 그 마음 같으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심장은 그리움으로 사무친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나의 어머니는 말이 없으신 분이다. 평소엔 무슨 일이 있어도, 온화한 성품 안에서 자식들을 품어주었다. 어머니에게는 항상 따뜻한 정감이 흐른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나의 어머니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나 무언중에 때로는 말보다도 더 아프게 마음으로 이심전심의 말씀을 하신 적이 많다.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말보다는 먼저 손수 당신이 행동으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사랑과 격과 성품을 인격으로 승화시켜 보여주신 분이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까지 한 마디로 말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다. 누군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 당신이 숭선수범함으로 씨 집안을 이끌어 나가셨다고 표현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머느리에게까지도 부연의 사랑을 실천하셨다.

또한,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내게는 교훈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술을 무척 좋아하셔서 평안한 집안이 시끄러워질 때가 많았다.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술로 인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말로 권면하셨다. “아버지께서 약주를 잡으셔서 그렇지, 네가 알다시피 원래는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빼 빠지게 일하시고 힘드시니까 한 잔씩 약주를 드시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생활 붕급으로 너희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다. 아버지는 성품이 좋은 분이네. 길 가는 까막까치도 잡아가다 줄 사람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고 조금 시끄럽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는 말대꾸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럴수록 아버지의 언성이 더 높아지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니, 너도 술을 잡수신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들이! 알겠니?” 어머니는 늘 그렇게, 역사자지도 아버지 입장에서 변호하시며 오히려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기회로 삼으실 만큼 안전하고 인자하고 지혜로운 분이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도 이제 나이 들어 자식 농사 다 짓고, 사위도 보고 손자까지 보게 되었는 데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알아가고 싶은 우리 어머니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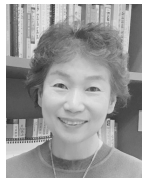
그리고 누구나 부모로서 자식이 잘되라고 훈육을 하고, 대부분 부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회조리를 들고 그 회조리 품 안에서 키운다.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키우면서 매를 듣지 않고 양육하는 어머니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이 질문에 자랑스럽게 ‘우리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내 기억에 어머니에게 매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매사에 칭찬을 들을 정도로 무엇이든 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어머니의 교육방법이 다를 뿐이었다. 어머니께서는 회조리보다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

셨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나의 어머니는 심지가 중심에 서 있으시고, 굳은 의지와 강직한 성품으로 자식들을 키우셨다. 당신의 속이 썩고 간이 타며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속된 표현으로 울화통이 터져도,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다. 거세고 세차게 모진 바람은 휘몰아치는 데도 내 어머니의 사랑은 잔잔하고 평온한 호수 같았다.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어머니이기에, 기일이 다가오는 4월엔 더욱더 애뜻하게 그리워진다.

그리운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이제는 큰 소리로 ‘어머니!’하고 불러 봐도 영원히 대답이 없으신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그렁그렁 실개천에 폭포수처럼 흘러넘친다. 부모님이 이 땅에 아니 계시기에, 기일이 되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애끊는 마음이 사무쳐서, 하늘 문을 열고 용광모처럼 천상으로 불타오른다.

기일에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어머니의 은혜라고 한다. 그리운 어머니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계실 때처럼 전하라고 자주 드려야겠다.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모든 세상사 근심과 걱정을 털어드리고, 평안으로 채워드려야겠다. 홀로 외로워하실 때면 위로해 드리고, 자식의 사랑을 신나는 기쁨으로 전하며 말동무가 되어드려야겠다. 파도처럼 해일처럼 밀려오는 효도도 좋지만, 솔직하게 정성스럽게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웃으며 인아 드려야겠다. 어머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자식으로 다시 살 수는 없을까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 심/사/평



조희경(趙倉京) 장로  
독일교회 · 문학평론가 · 문학박사  
전 성결대 국문과 교수

‘어머니’를 소재로 한 25편의 주옥같은 에세이에는 불가해한 어머니의 초상을 무가력한 인간의 언어로 드러내야 하는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어머니에 대하여 쓰려면 어머니를 알아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또한 어머니의 세계이니, 나의 어머니를 언어로 그려낸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수상작의 필자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생의 한 순간을 잘 포착하였다. 대상을 받은 여혜구 장로님은 이 글에서 현모양처였던 어머니의 삶을 추억한다. 말이 없는 어머니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삶을 사랑하였음을 짧은 일화를 통해 인상적으로 그려낸다. 말쑥은 없으셔도 이심전심의 사랑을 살아온 어머니의 생애를 접하면서, 독자는 점점 무례해지는 현대인의 가족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최우수상을 받은 전예나 권사님의 필치는 진솔하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아오셨음을 독자는 고개 끄덕이며 공감한다. 하루 종일 손을 쉴 수가 없었던 일상이지만 권사님의 어머니는 이웃을 위해 언제나 시간을 내주고 밥을 내주고 인정을 베풀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난하나 부요한 삶의 주인공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 작가의 섬세한 시선이 그려낸 어머니의 모습은 독자를 눈물겹게 한다.

우수상을 받은 박지희 집사님의 글에는 출가한 딸과 친정 어머니와의 미묘한 거리감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필자의 시선이 균형을 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묘한 긴장의 근간에는 ‘어머니의 구원 문제’가 자리한다.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딸은 어머니의 구원을 이루려는 갈망에 시달린다. 박지희 집사님은 그 긴장감의 정체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데에서 연유함을 알게 된다.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딸의 모습은 독자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감동을 창출해낸다.

특별상을 받은 황금빛 양의 글에 드러나는 매우 진지한 태도는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지닌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만나는 문제를 앞에서 어머니와 금빛 양의 대화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 금빛 양의 글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에 대한 질문으로 들끓는 질문노도의 시기를 함께 대처해나가는 모녀관계가 잔잔하게 드러난다. 현명한 조력자인 어머니와 나누는 고등학생의 일상 풍경이 독자의 기대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수상작들의 공통점은 어머니를 표면적인 이미지로 포장하지 않고, 어머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경이로움을 입체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그 삶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굳이 아픔의 고백을 떠올리지 않아도, 이 땅의 어머니들은 충분히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어머니들이 부르는 지고지순의 사랑노래는 오늘날 아들·딸의 영혼을 흔들며 깨운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인사를 드린다.

## 최우수상

## 엄마의 부지깽이 사랑

침이 없던 어린 시절 언니나 동생이랑 다투고 큰소리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안 어른들 걱정하신다며 부지깽이를 들고 뛰어 오십니다. 다투면 우리는 후다닥 뛰쳐나갑니다. 대분 바반 벗어나면, 어머니 동네 우세스럽다며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밖에 나가 까마득히 있고 놀다가 해질 무렵에야 꾸중을 들은 생각이 나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엄마는 언제 쫓아냈는 듯 아무런 말쑥 없이 편안히 받아 주시니,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송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어머니는 “회조리를 들고 가도 도망가지 않고 앉아 있던 고집쟁이 막내가 미웠다”고 하셨지요. 요즘 막내여동생에게 물어보면, 동생은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들고 방문을 열어젖혔어도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합니다. 막내에게 엄마는 하늘이고 공기이고, 땅과 같아서 부족한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부지깽이는 사랑이었습시다.

농촌의 가을길로 더 없이 바쁜 날, 우리 집 부엌에서는 부지깽이도 날아다니고, 앞마당의 누렁이도 멍달아서 이리 저리 분주히 뛰어 다녔습니다. 농번기에 엄마 손은 손톱을 깎을 필요도 없이 닳아 없어지고 거칠어져, 가려운 등을 긁어 달라 내밀면 그 손바닥으로 문지르지만 해도 시원할 만큼 거칠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중에 밥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 오는 걸인도, 머리에 생선을 이고 오는 보따리 장사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그들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고개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

시며 생선을 뿔이로 사면서, 눈치보지 않고 먹고 갈 수 있도록 한 권에 밥과 반찬을 넉넉히 담아 내 주셨습니다. 어린 우리가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여자없이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가 많으니 품을 팔러 오는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재첩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좀 일찍 보내줘야 그들도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저녁도 지어 먹는다”고 하시며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보내는 걸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일꾼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일이라 마무리 하고 간다고 해도 한사코 “내일 하면 된다” 하시고 집으로 보내시기로 유명했으니 우리 집에는 서로 품삯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된다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은 근면성실하셨던 어머니에게 반찬은 서너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의복도 세 벌이면 깨끗이 세탁해 입을 수 있으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농사지는 채소를 엄마와 앉아 다듬곤 했습니다. 마무리 할 무렵 내가 조금 더 쓸 수 있는 잎을 찾으면, 어머니는 “이제 그만하자. 남은 것은 새도 먹고 벌레도 먹게 두자”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진 엄마와 시골 전정집에서 며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나는, 아이 둘 키우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팔 남매에 시부모님 모시고 종손으로 많은 제사와 집안 대소사 행하며 힘든 세월을 어찌 사셨느냐고 여쭙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를 키우

고 살 때가 좋았다”는 대답을 들으며, 내 나이 삼십대 중반에 불과했으니, 그때는 엄마의 외로움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이제 내 나이 육십이 되어 보니 어머니의 말씀 속에 얼마나 절절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는지 알 것 같아 눈물 흘려 후회합니다. 그때 어머니께 더 자주 전화 드리고 고맙다는 말 전해 드릴 걸. 엄마는 저희 전화를 받으시면 늘 씩씩하고 다정하게 “우리 예나나, 예기들하고 사느라 힘들지! 일하라. 살림하라 바쁠 텐데 전화 해줘서 고맙다” 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니 반찬도 마땅히 없을 텐데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요?”라고 여쭙기라도 하면 “걱정 하지마라. 쌀 있고, 장 있고, 푸성귀 있는데 뭘 걱정이나” 하셨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예쁘게 늙을 거야” 하면, 엄마는 “뭘 소리나. 우리 딸은 엄마보다 훨씬 잘 살아야지” 하시면 멋진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언니와 다투면 늘 제 편을 들어 주시며 “우리 예나가 가장 잘 살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잘사는 부자가 안 되어서 지금도 궁핍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슨 근거로 우리 예나가 가장 잘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천국에서 만나면 꼭 여쭙보고 싶습니다.

엄마는 50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가 멀리 아랫마을에 있기에 새벽마다 일어나 훗날 켜고 방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팔 남매를 가시키시고 외롭게 혼자 계시다가 83세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의식 없이 2주 정도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짐 되지 않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주님께 올리던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셨습니다.

엄마 병실에 누워 계시는 때 엄마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 드리며,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요.”라고 하니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창밖은 폭련꽃 꽃망울이 뚝뚝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사월이었습시다. 엄마는 이 땅에서의 사명 잘 감당 하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 동네 어른들의 청천이 자지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평생 새색시 같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사셨다. 성자 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웃은 일은 당신께서 다 품어 안고 사셨단다. 그런 사람이 없다.”

엄마가 소천하시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나는 우울증이 올 만큼 슬퍼하며,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던 엄마의 기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견디기 힘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중에 지내던 어느 날 꿈속에서 엄마가 찾아 오셨습니다. 엄마는 아주 편안하신 모습으로 “내 집이 여기다”라고 하시며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에는 보석 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있었습니다. 그 꿈 이후, 나는 엄마가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셨는데 내 서러움에 울며 지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눈물과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연민에 빠져 슬퍼하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천국에 계신 엄마를 꿈속에서 만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시다. 저도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쏘으며, 믿을 생활 잘하겠습니다.